

## 이원적 발렌츠 모델

최균호(고려대)

### 1. 머리말

Tesniere에 의해 본격적으로 기틀이 마련된 발렌츠 이론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독어학에 소개된 이래 많은 독어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늘날 체계적인 언어 기술을 위한 주요 이론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특히 독어학자들이 발렌츠 이론에 주목한 이유로 우선 발렌츠 이론이 독어권 자생의 언어 이론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언어학의 중심부에는 생성변형문법과 같은 주로 영어권에서 유래한 이론이 자리잡고 있다. 발렌츠 이론은 비록 프랑스의 언어학자 Tesniere에 의해 토대가 마련되었고 프랑스와 구소련연방과 같은 독어권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되었지만, 주로 독어권의 학자들에 의하여 독일어에 적용되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따라서 독어권 고유의 언어 이론을 탐구하는 독어학자들은 한 번쯤은 발렌츠 이론을 접하게 된다 (Latour 1985:5 참조).

발렌츠 이론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발렌츠라는 복합적인 현상 그 자체 때문이다. Helbig(1991)에 따르면 발렌츠는 문법과 어휘 그리고 통사론과 의미론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발렌츠 이론은 언어 요소의 복합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주요 수단으로써 자리 잡았다.

발렌츠라는 현상은 비록 발렌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발렌츠 이론 이외에 다양한 문법 모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Fillmore(1968, 1977)의 격 문법에서 격 틀 Kasusrahmen과 그리고 생성문법, 예컨대 지배·결속 이론 Rektions- und Bindungstheorie에서 논의되는 논항구조

---

1) Schumacher (1988<sup>2)</sup>의 발렌츠참고 문헌 목록을 조사해보면 불어권에서 발간된 논문들은 독어권에서 발간된 논문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ngel 1996: 57 참조).

Argumentstruktur, 의미 역 Theta-Rolle 등은 발렌츠에 상응하는 개념들이다. 이미 Vater(1995, 1996a)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지배·결속이론의 X-bar 규칙같은 통사 구조를 기술하는 법칙만으로는 그저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만을 기술할 수 있다. 구체적인 통사 구조를 개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핵심어의 발렌츠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렌츠이론은 다양한 문법 모델에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Agel(1994)이 언급했듯이 발렌츠 이론은 특정 문법 모델에 결부된 이론이 아니라 모든 문법 모델들이 발렌츠 이론을 필요로 한다.

발렌츠 이론의 최대 성과는 독일어 학습 분야에서 발견될 수 있다. 70년대 후반 이래 발렌츠 이론의 핵심 사항들이 독일어 학습에 수용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인을 위한 독일어 교재들이 발렌츠 이론에 바탕을 두어 기술되었다 (Bräuer 1974, Engel 1980, Latour 1985, Götze 1996 참조).

발렌츠 연구의 구체적인 성과로 외국인들의 독일어 학습에 매우 유용한 발렌츠 사전들이 편찬되었다. 독일어 발렌츠 사전 뿐만 아니라 (Helbig/Schenkel 1973<sup>2</sup>, Sommerfeldt/Schreiber 1983<sup>3a</sup>, 1983<sup>3b</sup>, 1996, Engel/Schumacher 1978<sup>2</sup>, Schumacher (Hrsg.) 1986, Schröder 1993), 독일어-스페인어 (Rall/Rall/Zorrilla 1980), 독일어-루마니아어 (Engel/Savin 1983), 헝가리어-독일어(Laszlo/Szanyi 1984) 발렌츠 사전 등이 편찬되었다<sup>2)</sup>.

이와 같은 발렌츠 이론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발렌츠 이론은 몇 가지 핵심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날 Jacobs (1994a)같은 학자는 “발렌츠 이론의 위기 Valenzkrise”를 말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일한 동사의 발렌츠가 학자들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기술된다는 점은 발렌츠 이론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점이다. 예를 들면 독어 동사 wohnen을 Helbig/Schenkel(1973<sup>2</sup>:127)은 2가 동사로 파악하는 반면에,

2) 이 밖에도 독일어-이탈리아어, 독일어-폴란드어, 독일어-아랍어 발렌츠 사전이 인쇄중이거나 독일어-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 독일어-중국어 발렌츠 사전이 작업중이다 (Engel 1996 참조).

Welke (1988:68)는 3가 동사로 간주한다.

동사 fahren의 경우 학자들 간의 발렌츠기술의 상이성이 보다 두드러진다.

Engel/Schumacher(1978<sup>2</sup>:175)의 발렌츠 사전에는 동사 fahren이 2가동사로 기술되어있지만 Helbig/Schenkel(1973<sup>2</sup>:239)은 3가 동사로 파악하고 있다. Wotjak (1984:410f)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사 fahren을 5가 동사로 간주한다. 심지어 Vater(1981:232)는 동사 fahren을 최대 6개의 보족어를 갖는 6가 동사로 파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문제점의 원인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우선 발렌츠 정의의 상이성을 들 수 있다. 발렌츠라는 현상이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되었고 따라서 보족어를 파악하는 방법 역시 상이하였으므로 동사의 발렌츠 기술이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 (JACOBS 1994a 참조).

그러나 이 밖에도 위에서 언급한 동일 동사 발렌츠 기술의 상이성의 원인으로 발렌츠 본질에 대한 오류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발렌츠 연구학자들은 발렌츠와 언어 성분들의 실현 사이에 일대일 대응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발렌츠를 기술할 때 발렌츠 층위와 발렌츠 실현 층위가 서로 혼재되었다. 그러나 발렌츠는 어휘부Lexikon에 내재된 잠재적 능력으로, 언어 성분들의 구체적 실현에는 발렌츠 이외의 또 다른 요소들도 개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잠재적 능력으로서 발렌츠와 발렌츠의 구체적 실현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발렌츠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의 발렌츠 모델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금까지의 발렌츠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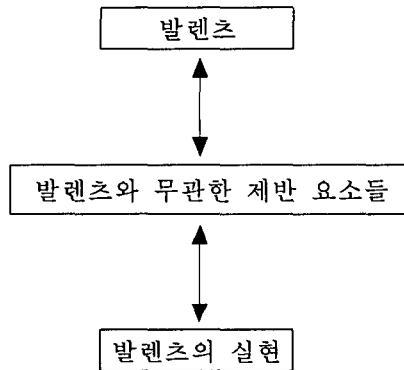


기존의 발렌츠 연구자들은 발렌츠를 구체적 실현 층위로부터 직접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언어 성분들의 실현에는 발렌츠만 관여한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성분들의 실현에 발렌츠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언어 성분들의 실현을 발렌츠만으로 설명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언어 성분들의 구체적 실현에는 발렌츠 이외에 통사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인지적 요소등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gel 1994 참조).

그림 (2)는 발렌츠와 발렌츠 실현 층위를 구분하고 발렌츠 실현을 발렌츠와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의 상호 작용으로 파악하는 이원적 발렌츠 모델이다.

(2) 새로운 발렌츠 모델



**3. 발렌츠와 발렌츠 실현**

본 논문에서는 이원적 발렌츠 모델을 기술하기 위하여 Agel (1994)이 사용한 잠재적 발렌츠 Valenzpotenz(이하 발렌츠로 약칭)와 발렌츠 실현 Valenzrealisierung이라는 용어를 수용한다.

위의 그림 (2)가 보여 주듯이 발렌츠와 발렌츠 실현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렌츠 층위에서는 발렌츠 관여 성분(valenzgebundene Glieder)과 발렌츠 자유 성분(valenzfreie Glieder)이 구분된다. 이와는 무관하게 발렌츠 실현 층위에서는 필수적 성분(notwendige Glieder)과 선택적 성분(optionale Glieder)이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발렌츠와 발렌츠 실현 층위 양자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양자 사이의 독립성을 도식적으로 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3)



상호 독립적인 발렌츠와 발렌츠 실현 사이의 관계를 고찰해 보면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1. 발렌츠 관여적이고 필수적(1/+)
2. 발렌츠 관여적이고 선택적(1/-)
3. 발렌츠 자유적이고 필수적(0/+)
4. 발렌츠 자유적이고 선택적(0/-)

위의 4가지 경우 중 발렌츠와 발렌츠 실현 양자 사이가 일치하는 첫 번째와 네 번째 경우는 발렌츠 연구에서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까지 발렌츠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현상들은 발렌츠와 발렌츠 실현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상호 독립적인 발렌츠 층위와 실현 층위를 구분하는 이원적 발렌츠 모델은 지금까지 발렌츠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몇몇 문제점들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다음 단원에서는 발렌츠 층위와 발렌츠 실현 층위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보기들을 통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즉 발렌츠 관여 성분이 항상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필수적인 성분이 항상 발렌츠 관여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 4. 발렌츠와 발렌츠 실현의 불일치

##### 4.1. 발렌츠 자유 성분과 필수성

발렌츠 자유 성분이 필수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발렌츠 연구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sup>3)</sup>. 왜냐하면 발렌츠 층위와 발렌츠 실현 층위 사이에 1 : 1 대응을 가정하는 일면적이고 일차원적인 발렌츠 모델로는 이 특수한 현상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발렌츠 층위와 발렌츠 실현 층위를 구분하는 이원적 발렌츠 모델을 도입하게 되면 이 현상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발렌츠 실현 층위의 필수성이 반드시 발렌츠 층위에서 보족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정 언어 성분의 필수적인 실현은 발렌츠 이외에도 발렌츠와 무관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서도 야기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다양한 보기들을 제시하고 이원적 발렌츠 모델에 의거하여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발렌츠 자유 성분이 필수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상이한 명칭으로 파악되었다. 이 현상을 Höhle (1978:24 이하)는 “논항 없는 구성 성분 Konstituenten ohne Argumentstelle”으로 Welke (1988:46,52)는 “의무적인 첨가어 obligatorische Angabe”로, Sadzinski (1989:85)는 “2차적인 보족어 sekundäre Aktanten”, 그리고 Agel (1994)은 “발렌츠 시체 Valenzleiche” 등으로 명하고 있다.

4.1.1. 독일어에서 regnen, schneien, dämmern 등과 같이 소위 날씨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발렌츠 층위와 발렌츠 실현 층위 사이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좋은 보기들이다. 이 동사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인칭 주어 es의 발렌츠 성분은 지금까지 발렌츠 연구에서 학자들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게 파악되었다.

Tesniere (1959:98,162), Helbig/Schenkel (1973<sup>2</sup>:445) 등은 이 동사들을 O가 동사로 파악함으로써 이 동사에 필수적으로 실현되는 es를 보족어로 취급하지 않았다<sup>4</sup>). 반면에 Götze (1979:127 이하), Tarvainen (1981:67 이하) 같은 발렌츠 연구자들은 es의 필수성을 근거로 es를 보족어로 파악하고 있다.

(4a) Es regnet / Es schneit

(4b) \*regnet / \*schneit

Erben (1972<sup>11</sup>:251), Vater (1994:93) 같은 학자들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여 소위 날씨 동사들을 논리·의미적으로는 O가 동사로 통사적으로는 1가 동사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날씨 동사에 수반되는 es를 보족어로 파악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족어는 의미론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 있으며 동종의 다른 언어 성분에 의하여 대체 될 수 있어야 한다 (Agel 1994 참조). 이 두 가지 특성들은 날씨 동사에 수반되는 es에는 결여되어 있다. 즉 es는 의미론적으로 지시 대상이 없으며, 유사한 다른 언어 성분으로 대체될 수 없다. 따라서 es를 보족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sup>5</sup>).

발렌츠 층위와 발렌츠 실현 층위를 구분하지 않는 전통적인 발렌츠 모델

4) 그러나 Tesniere (1959)와 Helbig/Schenkel (1973<sup>2</sup>)은 es의 필수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5)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Engel (1988)은 날씨 동사의 es가 동사 발렌츠에 의하여 요구된 성분이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es의 필수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es를 동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다.

로는 낱씨 동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es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때 es의 필수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낱씨 동사에 수반되는 es의 필수성은 동사 발렌츠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독일어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즉 독일어 평서문에서 주어 자리는 반드시 점유되어야 한다.

독일어 낱씨 동사에서처럼 주어 자리를 점유하는 성분이 결여될 경우 그 자리에는 소위 비인칭 주어인 es가 등장하게 된다.

4.1.2. 특정 언어 성분의 필수성이 동사 발렌츠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Jacobs (1994b:285)는 아래의 보기를 통하여 예시하고 있다.

(5a) Dort wurde kenem Touristen jemals etwas gestohlen -->

(5b) \*Dort wurde jemals etwas gestohlen

위 보기에서 keinem Touristen의 필수성은 동사 stehlen의 발렌츠와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keinem Touristen이 등장하지 않는 아래의 보기는 문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이다.

(6) Etwas wurde gestohlen.

(5b)의 비 문법성은 동사의 발렌츠가 아닌 jemals에 적용되는 의미론적 문맥조건 위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Jacobs 1994b 참조).

4.1.3. 원래는 발렌츠 자유적으로 간주되는 성분이 특정 문맥에서 의사 소통적인 이유로 인하여 필수적일 수 있다 (Moilanen 1985 참조).

( Wo arbeitet er? )

(7a) Er arbeitet bei uns

(7b) \*Er arbeitet

(Moilanen 1985:95)



동사 *arbeiten*은 원래 장소 부사적 규정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보기에서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위의 문맥에서 장소의 부사적 규정어는 레마로서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1.4. 특정 종류의 텍스트에서는 특정 언어 성분들의 실현이 발렌츠 층위에서 요구된 것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Schwitalla (1985)는 친지의 죽음을 알리는 부음 텍스트에서는 원래 발렌츠 자유적인 몇몇 성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부음 텍스트에서 동사 *sterben*은 보통 나이에 대한 진술과 함께 등장하는데 원래 나이에 대한 진술은 동사 *sterben*의 경우 발렌츠 자유 성분이다.

따라서 부음 텍스트에서 나이에 대한 진술이 실현되는 것은 동사 *sterben*의 발렌츠 때문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텍스트가 지닌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1.5. 발렌츠 자유 성분이 발렌츠 실현 층위에서 필수적인 경우는 소위 중립 구문 *Mittelkonstruktion*<sup>6)</sup>에서도 관찰된다.

(8a) Das Buch liest sich leicht

(9a) Der Wein trinkt sich gut

(Vater 1996b:158)

위 문장에서 화법 부사적 규정어인 *leicht* 와 *gut*은 필수적이다.

(8b) \*Das Buch liest sich

(9b) \*Der Wein trinkt sich

그러나 동사 *lesen*과 *trinken* 에서 *leicht*와 *gut*같은 화법 부사적 규정어

6) Vater (1996b)는 Abraham (1987)에 의거하여 중립구문을 “표층 구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동작주가 내포된 통사구문”으로 정의 하고있다.

들은 발렌츠 자유 성분이다. 발렌츠 층위와 발렌츠 실현 층위를 동일시하는 발렌츠 모델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특정 언어 성분들의 실현에 발렌츠 이외에도 또 다른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는 이원적 발렌츠 모델에서 이 현상은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즉 중립 구문이라는 특정한 통사구문과 그의 의미론적 특성에 의해 원래는 발렌츠 자유 성분인 화법 부사적 규정어들이 필수적으로 실현된다.

#### 4.2. 발렌츠 관여 성분과 선택성

발렌츠 관여 성분들이 발렌츠 실현 층위에서 실현되지 않는 현상은 지금까지 발렌츠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보족어의 수의성 *Fakultativität* 혹은 생략 *Ellips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때 발렌츠 층위와 발렌츠 실현 층위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제반 요소들과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어휘부 *Lexikon*에 기록된 특성으로 간주하였고, 어떤 조건하에 발렌츠 관여적인 언어 성분이 선택적으로 실현되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아래에서는 발렌츠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발렌츠 관여적인 성분들이 발렌츠 실현 층위에서 선택적인 성분이 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4.2.1. 공 주제 *Null-Topik*<sup>7)</sup>현상은 원래 발렌츠 관여 성분으로 규정된 보족어가 발렌츠 실현 층위에서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보여 준다.

(10a) Den habe ich schon aufgeweckt -->

(10b) Habe ich schon aufgeweckt

(Jacobs 1994b:285)

7) 공 주제 *Null-Topik* 현상은 영어로는 *pronoun-zap*으로 불린다 (Blume 1993:22 이하). 공 주제 현상에 대해서는 Fries (1988)를 참조하십시오.

위의 보기에서 발렌츠 층위와 발렌츠 실현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발렌츠 실현 층위에서 직접 발렌츠를 도출하려고 시도한다면 동사 aufwecken의 발렌츠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 a. (10b)를 근거로, 동사 aufwecken은 주격 보족어 하나만 요구하는 1가 동사이다.
- b. 동사 aufwecken은 직접 목적어가 생략 가능한 수의적 보족어인 2가 동사이다.

그중 aufwecken을 1가 동사로 파악하는 첫 번째 설명은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보기(11)을 근거로 하여 별 어려움 없이 그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11) <sup>?</sup>Ich habe aufgeweckt

따라서 두 번째 설명이 동사 aufwecken의 적절한 발렌츠 기술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 주제라는 현상은 발렌츠 연구에서 빈번하게 발렌츠가 축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Blume 1993:22 참조).

그러나 이 현상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러한 설명이 적절치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10b)에서 직접 목적어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동사 보족어의 수의성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Jacobs (1994b)가 지적했듯이 (10b)와 같은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는 동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동사에서 생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성분의 비실현은 정동사의 앞자리 Vorfeld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1a) Ich habe den schon aufgeweckt -->

(11b)<sup>?</sup>Ich habe schon aufgeweckt (Jacobs1994b:304)

따라서 공 주제라는 현상은 동사의 발렌츠와는 무관한 요소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Fries (1987:206)에 따르면 독일어는 문맥에서 추론될 수 있는 주제화된 요소들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실현될 필요는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정한 통사 구조와 특정한 문맥 조건이 어휘부 Lexikon에서 발렌츠 관여 성분으로 규정된 보족어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발렌츠와 무관한 특정 요소들이 특정 언어 성분들의 실현 및 비 실현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가정하는 이원적 발렌츠 모델에 의해서 비로소 공 주제라는 현상은 체계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이다.

4.2.2. 발렌츠 층위에서 발렌츠 관여성이 반드시 발렌츠 실현 층위에서 필수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발렌츠 연구에서 소위 어휘적 생략 Lexikalische Ellipse이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진 아래의 보기들에서 잘 제시되고 있다 (Heringer 1967, Steinitz 1969:19이하, Helbig/Schenkel 1973<sup>2</sup>:53이하, Vater 1978a:10 Nikula 1978:23이하, Welke 1988 참조).

(12a) Die Pilze riechen schlecht

(12b) Die Pilze riechen (Steinitz 1969:21)

4.2.3. Baskevic (1987:155)는 아래의 보기를 이용하여 필수적 보족어들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13) KP der USA behindert

(14) USA-Verteidigungsministerium fordert

위 보기 (13)과 (14)는 신문의 표제어로서 의무적 보족어들이 의사 전달적·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신문 표제어는 기사의 내용을 최소의 언어적 표현으로 함축해서 표시한다. 이 때문에 종종 의무적 보족어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발렌츠와 무관한 요소들을 고려함이 없이 위 문장에서 직접 해당 발렌츠를 규명하려고 시도한다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4.2.4. 수동 구문에서도 발렌츠 관여적인 성분들이 선택적으로 실현된다 (Vater 1996b:155 이하 참조).

독일어에서 능동구문의 주격 보족어는 대개 수동 구문에서는 선택적으로 실현된다.

- (15) Peter schlägt Hans
- (16) Peter wird von Hans geschlagen
- (17) Peter wird geschlagen

수동 구문에서 동작주를 표시하는 구의 발렌츠 성분은 학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었다. 몇몇 학자(예를 들면 Helbig/Schenkel 1973<sup>2</sup>:58, Helbig/Stepanowa 1981<sup>2</sup>:159 이하, Tarvainen 1981)들은 수동문의 동작주를 수의적 보족어로 파악한다. 반면 다른 학자(예를 들면 Korhonen 1977, Sadzinski 1989)들은 임의의 첨가어로 간주한다.

Korhonen (1977:190 이하)은 능동문의 보족어인 동작주 구가 수동문에서 임의의 첨가어로 변화하는 과정을 발렌츠 축소 Valenzreduktion로 파악한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발렌츠 축소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수동문에서 동작주 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마치 발렌츠에 의한 것으로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동문에서도 잠재적 능력으로서의 schlagen의 발렌츠는 변하지 않는다. 잠재적 발렌츠에 상응하지 않는 문장(17)과 같은 실현형태는 발렌츠와는 무관한 독일어 특정 구문에 의해 유도된 것이다.

수동 구문처럼 중립 구문에서도 동작주는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 (18) Das Buch liest sich schnell.

이와 같이 원래 발렌츠 관여 성분이었던 보족어들이 특정 구문에서 실현되지 않는 현상은 동사 자체의 발렌츠와는 무관한 것으로 독일어 특정 구문들의 독특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4.2.5. 독일어에서 geben과 같은 동사들은 구조에 따라서 잠재적 발렌츠와

상이한 실현 형태를 보일 수 있다 (Fries 1987참조). 동사 *geben*은 3가 동사로서 독일어 평서문에서 ‘~에게 ~을 주다’ 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geben*의 3격 목적어와 4격 목적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19a) Hans gibt mir das Buch

(19b) \*Hans gibt mir

(19c) \*Hans gibt das Buch

반면에 독일어 명령문에서는 문맥에서 3격 목적어와 4격 목적어가 추론될 수 있다면 두 개의 목적어 모두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200a) Gib das Buch!

(20b) Gib mir!

(20c) Gib! (Fries 1987:206)

보기(20a)부터 (200c)를 근거로 동사 *geben*의 3격 목적어와 4격 목적어를 모두 수의적 보족어로 규정하거나 동사 *geben*을 1가 동사 혹은 심지어 0가 동사로 파악한다면 이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 위의 보기에서 3격 목적어와 4격 목적어가 선택적으로 실현된 것은 *geben*동사의 발렌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명령문이라는 특수한 통사 구문 때문이다.

4.2.6. 마지막으로 발렌츠 관여 성분의 선택적 실현은 독일어 이동동사 *Bewegungsverben* 에서도 관찰된다.

(21a) Peter geht ins Zimmer

(21b) Peter geht

독일어 이동 동사에서 장소의 부사적 규정어는 발렌츠 관여 성분이지만 그의 실현은 필수적이지 않다. 장소의 부사적 규정어가 실현되는 데에는 특정한 인지 과정(공간화 과정과 탈 공간화 과정)이 개입하게 되는 데 이

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 5. 발렌츠와 인지

본 단원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이원적 발렌츠 모델을 토대로 하여 지금까지 발렌츠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발렌츠와 인지 Kognition 사이의 관계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때 특히 인지 과정이 특정 언어 성분의 구체적 실현 혹은 비 실현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미 구조와 인식 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 5.1. 의미 구조와 인식 구조

Bierwisch (1983)는 의미 구조와 인식 구조를 구분한다.<sup>8)</sup> 의미 구조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만 결정되며 구체적인 해석은 인식 구조에서 문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는 이를 학교 Schule라는 보기를 가지고 설명한다.

(22) Die Schule macht ihm Sorgen. (Bierwisch 1983:77)

(22)번 문장에서 사용된 학교 Schule라는 낱말은 의미론적으로 다의적인 낱말은 아니지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학교 Schule라는 낱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된다.

(23) Die Schule steht neben dem Sportplatz.

(24) Die Schule wird von der Gemeinde unterstützt.

---

8) 이는 소위 2단계 의미론 모델 das zweistufige Semantikmodell로 불린다. 반면에, Jackendoff (1983)는 “Semantic structure is conceptual structure”라고 주장하여 의미구조와 인식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25) Die Schule langweilt ihn nur gelegentlich.

(26) Die Schule ist aus der Geschichte Europas nicht wegzudenken.

(Bierwisch 1983:77)

(23)번 문장에서 학교는 건물, (24)번 문장에서는 구체적 교육기관, (25)번 문장에서는 학습과정, (26)번 문장에서는 기관의 유형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미론적으로 명확하고 다의적이지 않은 낱말이 인식 구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상술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Bierwisch (1983)는 “인식적 전이 *konzeptuelle Verschiebung*”라 일컫고 있다.

## 5.2. 인지 과정의 결과로서의 발렌츠 실현

본 단원에서는 인지 과정의 결과로서의 발렌츠 실현을 독일어 이동 동사 *gehen*을 보기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동사 *gehen*의 통사론적 발렌츠(SYN-VAL)와 의미론적 발렌츠(SEM-VAL)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27) SYN-VAL: /nom/pp

(28) SEM-VAL:  $\lambda P^2[\text{dir}] \lambda x^1[\text{GEH}(P)(x)]$

동사 *gehen*은 2가 동사로 통사적으로 1격 보족어와 전치사 보족어를 요구한다. 의미론상으로 *gehen*은 2개의 논항을 수반하며 그 중에서 두 번째 논항은 방향성*direktional*이라는 자질을 내포한다.

(29) Die Sekretärin geht ins Büro.

(29)번 문장에서 동사 *gehen*은 의미론적으로 명확하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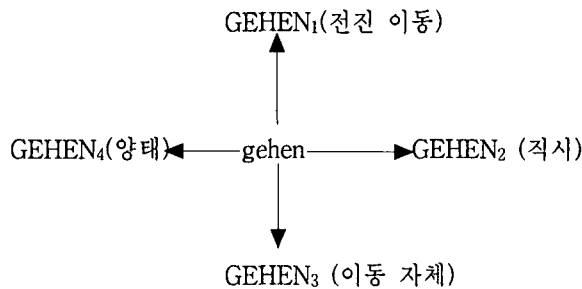


- (30) Maria geht vom Seminarraum zur Bibliothek.
- (31) Peter geht, während Anna kommt.
- (32) Paul geht weiter, während Ulf stehenbleibt.
- (33) Der Gelähmte kann nach einem Wunder wieder gehen.

(30)번 문장에서 gehen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전진 이동을, (31)번 문장에서는 직시 Deixis를, (32)번 문장에서는 정지에 반하는 이동 자체를, (33)번 문장에서는 이동의 양태를 표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사gehen의 인식적 전이과정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 동사 gehen 의 인식적 전이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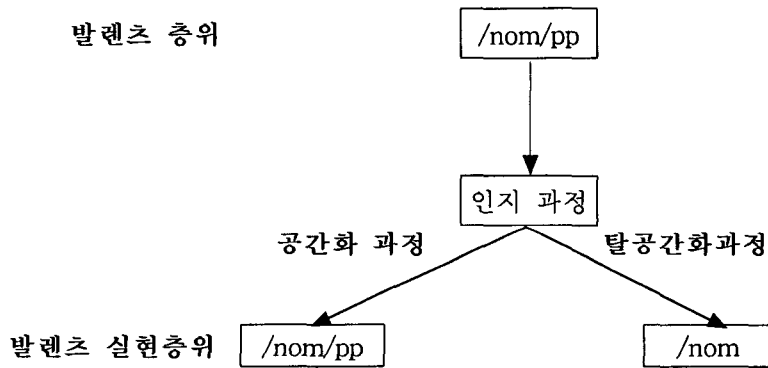
전진 이동을 나타내는 GEHEN<sub>1</sub> 로의 인식적 전이 과정은 공간화 과정 Lokalisierungsprozeß, 그밖의 다른 인식적 전이과정 - GEHEN<sub>2</sub>(직시), GEHEN<sub>3</sub>(이동 자체), GEHEN<sub>4</sub>(양태) - 은 탈 공간화 과정 Delokalisierungsprozeß으로 명명될 수 있다.

보기(30)-(33)들이 예시하듯이 공간화 과정이 발생할 경우 전치사 보족어의 실현은 필수적이지만, 탈 공간화 과정에서는 전치사 보족어의 실현이 선택적이다. 즉, 발렌츠 층위에서 발렌츠 관여 성분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보족어가 발렌츠 실현 층위에서 필수적 성분인지 혹은 선택적 성분인

지의 여부는 공간화 과정 혹은 탈 공간화 과정이라는 인지과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35)은 이원적 발렌츠 모델에 의거한 독일동사 gehen의 통사적 발렌츠실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5) 동사 gehen 의 통사적 발렌츠 실현



### 5.3. 인지 과정과 문맥 사이의 상호 작용

비록 언어 층위와 인지 층위 사이에 일대일 대응은 존재하지 않지만 양자는 상호 작용에 의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으로, 특정한 인지 과정이 특정 언어 성분의 실현 혹은 비실현을 결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언어 성분들이 특정한 인지 과정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 5.3.1. 방향을 나타내는 보족어의 실현

독어 이동 동사에 방향을 나타내는 보족어가 실현되면, 공간화 과정이 촉진되며 따라서 그 동사는 일반적으로 전진 이동을 표현한다.

### 5.3.2. 관찰자

이동의 시발점에 관찰자를 가정하면 탈 공간화 과정이 촉진되고 전치사 보족어의 실현은 선택적이 된다.

(36a)번 문장에서 동사 *gehen*은 일반적으로 *Küche*를 목표로 하는 전진 이동을 표시한다.

(36a) Peter geht in die Küche.

그러나 이동의 시발점에 한 명의 관찰자를 가정하면 동사 *gehen*은 더 이상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전진 이동을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직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in die Küche*는 이미 직시에 의해 표시된 이동 방향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선택적 성분이다. (36a)번 문장은 이동의 종착점에 관찰자가 가정된 (36b)와 대칭 관계에 놓여 있게 된다 (Di Meola 1994 참조).

(36b) Peter kommt in die Küche.

### 5.3.3. 언어적 수단들

다양한 언어적 수단들이 탈 공간화 과정을 촉진하여 이동 동사의 전치사 보족어의 실현을 선택적으로 만든다.

#### 5.3.3.1. 화법 조동사

화법 조동사는 탈 공간화 과정, 특히 *GEHEN*<sub>4</sub>(양태)를 촉진한다.

(37) Mein Sohn konnte mit elf Monaten schon gehen.

### 5.3.3.2. 대비

대비에 의하여 탈 공간화 과정, GEHEN<sub>2</sub>(직시), GEHEN<sub>3</sub>(이동 자체), GEHEN<sub>4</sub>(양태)가 촉진될 수 있다.

(38) Peter geht nicht, sondern er schleicht.

(39) Hans geht, während Karl kommt.

(40) Paul geht weiter, während Hans stehenbleibt.

### 5.3.3.3. 추가적인 어휘적 표현

몇몇 추가적인 어휘들이 탈 공간화 과정을 촉진하여 전치사 보족어의 실현을 선택적으로 만든다.

#### 5.3.3.3.1. schon 과 noch

schon과 noch는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행된 것 혹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다. 이에 의해 탈 공간화 과정이 촉진될 수 있다.

(41) Peter geht schon.

(42) Paul geht noch.

#### 5.3.3.3.2. 화법 부사적 규정어

화법 부사적 규정어에 의하여 탈 공간화 과정이 촉진될 수 있으며, 이때에 동사 gehen은 전진 이동이 아닌 이동의 양태를 표현한다.

(43) Peter geht langsam.

(44) Peter geht würdevoll.

### 5.3.4. 언어외적 수단

위에서 언급한 언어적 수단 이외에 언어외적 수단(예를 들면 몸짓)에 의하여 탈 공간화 과정이 촉진될 수 있다.

(45) Maria geht so.

(45)번 문장에서 화자는 so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Maria가 이동하는 양태를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다.

## 6.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단면적이고 일차원적인 발렌츠 모델에 의거한 발렌츠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발렌츠 층위와 발렌츠 실현 층위를 구분하는 이원적 발렌츠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원적 발렌츠 모델에서는 발렌츠가 잠재적 능력으로 간주되어 단지 하나의 가능한 실현 형태를 제시할 뿐 실제적 실현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발렌츠가 언어 성분들의 실제적 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모든 언어 성분들의 실현을 발렌츠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발렌츠와 무관한 제반 요소들이 언어 성분들의 실제적 실현에 개입하여 발렌츠와 밀접한 상호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발렌츠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발렌츠 층위와 발렌츠 실현 층위 사이를 구분하고 발렌츠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을 분석하고 분류한 후 양자 사이의 밀접한 상호 작용을 규명하는 다원적 발렌츠 모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이원적 발렌츠 모델을 요약해서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VAL-PO<SYN-VAL, SEM-VAL>>RM, VAL-RE>

SYN-VAL = 통사론적 발렌츠 Syntaktische Valenz

SEM-VAL = 의미론적 발렌츠 Semantische Valenz

VAL-PO = 잠재적 발렌츠 Valenzpotenz

VAL-RE = 발렌츠 실현 Valenzrealisierung

RM = 실현 메카니즘 Realisierungsmechanismen

통사론적 발렌츠와 의미론적 발렌츠로 구성된 잠재적 발렌츠는 통사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인지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실현 메카니즘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구체적인 발렌츠 실현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어휘부에 기재된 잠재적 발렌츠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발렌츠 실현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발렌츠와 상호 작용을 이루는 제반 요소들을 포함한 실현 메카니즘을 고려한 복합적인 발렌츠 연구가 앞으로 발렌츠 연구의 과제로 대두된다.

## 참 고 문 헌

- Abraham, W., 1987. Zur Typologie des Mediums in der Westgermania.  
In: Abraham, W./Århammar, R. (Hrsg.), 1987, 3-23.
- Abraham, W./Århammar, R. (Hrsg.), 1987. Linguistik in Deutschland.  
Akten des 21. Linguistischen Kolloquiums, Groningen 1986.  
Tübingen: Niemeyer (= Linguistische Arbeiten 182).
- Ágel, V., 1994. Valenzrealisierung, Grammatik, Valenz. AP Köln Nr. 20  
(Neue Folge).
- Baskevic, V., 1987. Zum Einfluß kommunikativ-pragmatischer Faktoren  
auf die Valenz. Deutsch als Fremdsprache 24, 153-155.
- Bierwisch, M., 1983. Semantische und konzeptuelle Repräsentation

- lexikalischer Einheiten. In: Ruzicka, R./Motsch, W.(Hrsg.), 1983, 61-99.
- Blume, K., 1993. Valenz deutscher Verben und (Nicht-)Notwendigkeit (=Theorie des Lexikons 48).
- Bräuer, R., 1974. Die Valenztheorie. Ihre Geschichte, ihr aktueller Stand und ihre Möglichkeiten. Wissenschaftliche Zeitschrift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Ges.-Sprachwiss. Reihe XXIII, 3/4, 267-280.
- Di Meola, C., 1994. Kommen und gehen. Eine kognitiv-linguistische Untersuchung der Polysemie deiktischer Bewegungsverben. Tübingen: Niemeyer(=Linguistische Arbeiten 325).
- Engel, U., (Hrsg.), 1980. Grundzüge der strukturalen Syntax. Stuttgart: Klett.
- Engel, U., 1996. Tesnière mißverstanden. In: Gréciano, G./Schumacher, H. (Hrsg.), 1996, 53-61.
- Engel, U./Savin. 1983. Valenzlexikon deutsch-rumänisch. Heidelberg: Groos (=Deutsch im Kontrast 3).
- Engel, U./Schumacher, H., 1978<sup>2</sup> (1976). Kleines Valenzlexikon deutscher Verben. 2. verb. Aufl. Tübingen: TBL Verlag Gunter Narr (=Forschungsberichte des Instituts für deutsche Sprache Bd. 31).
- Erben, J., 1972<sup>11</sup> (1958). Deutsche Grammatik. Ein Abriß. 11., völlig neubearbeitete Auflage. München: Max Hueber.
- Fillmore, C.J., 1968. The case for case. In: Bach, E./Harms, R.T. (Hrsg.), 1968, 188. Dt. Übersetzung (Plädoyer für Kasus) in: Abraham, W. (Hrsg.), 1971, 11-18.
- Fillmore, C.J., 1977. The case for case reopened. In: Cole, P./Sadock, J.M. (Hrsg.), 1977, 59-82. Dt. Übersetzung (Die Wiedereröffnung des Plädoyers für Kasus) in: Pleines, J., (Hrsg.), 1981, 13-43.
- Fries, N., 1987. Nochmals: Valenz und Text. Deutsch als Fremdsprache 24, 205-207.

- Fries, N., 1988. Über das Null-Topik im Deutschen. Sprache und Pragmatik. Arbeitsberichte 3, 19-49.
- Götze, L., 1979. Valenzstrukturen deutscher Verben und Adjektive. Eine didaktische Darstellung für das Fach Deutsch als Fremdsprache. München: Max Hueber.
- Götze, L., 1996. Grammatikmodelle und ihre Didaktisierung in Deutsch als Fremdsprache. Deutsch als Fremdsprache 33, 136-143.
- Gréciano, G./Schumacher, H. (Hrsg.), 1996. Lucien Tesnière Syntaxe structurale et opérations mentales. Akten des deutsch-französischen Kolloquiums anlässlich der 100. Wiederkehr seines Geburtstages Strasbourg 1993. Tübingen: Niemeyer (=Linguistische Arbeiten 348).
- Helbig, G., 1991. Entwicklungen und Kontroversen in der Valenztheorie. In: Iwasaki, E./Shichiji, Y. (Hrsg.), 1991, 44-61.
- Helbig, G./Schenkel, W., 1973<sup>2</sup> (1969).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utscher Verben. Leipzig: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 Helbig, G./Stepanowa, M.D., 1981<sup>2</sup> (1978). Wortarten und das Problem der Valenz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 Heringer, H.-J., 1967. Wertigkeiten und nullwertige Verben im Deutschen.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23, 13-34.
- Höhle, T.N., 1978. Lexikalistische Syntax: Die Aktiv-Passiv-Relation und andere Infinitkonstruktionen im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Linguistische Arbeiten 67).
- Iwasaki, E./Shichiji, Y. (Hrsg.), 1991. Akten des VIII. Internationalen Germanisten-Kongresses Tokyo 1990. Bd.1. München: iudicium.
- Jackendoff, R., 1983. Semantics and Cogn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obs, J., 1994a. Kontra Valenz. Trier: WVT Wissenschaftlicher Verlag (=Fokus 12).



- Jacobs, J., 1994b. Das lexikalische Fundament der Unterscheidung von obligatorischen und fakultativen Ergänzunge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22, 284-319.
- Korhonen, J., 1977. Studien zu Dependenz, Valenz und Satzmodell. Teil I. Bern/Frankfurt a. M./Las Vegas: Lang.
- László, S./Szanyi, G., 1984. Magyar-német igei-vonzatok. (Ungarisch-deutsches Verbvalenz-Wörterbuch.). Budapest.
- Latour, B., 1985. Verbvalenz. Eine Einführung in die dependentielle Satzanalyse des Deutschen. München: Max Hueber.
- Moilanen, M., 1985. Zum Begriff der Notwendigkeit in der Satzgliedanalyse. In: Nyholm, K. (Hrsg.), *Grammatik im Unterricht*. Åbo/Turku (=Publication of the Åbo Akademi Foundation 103), 185-198.
- Mrazovic, P./Teubert, W. (Hrsg.), 1988. Valenzen im Kontrast. Ulrich Engel zum 60. Geburtstag. Heidelberg: Groos.
- Nikula, H., 1978. Kontextuell und lexikalisch bedingte Ellipse. Åbo/Turku (=Publications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Åbo Akademi Foundation 35).
- Radden, G./Dirven, R. (Hrsg.), 1981. Kasusgrammatik und Fremdsprachendidaktik. Trier: WVT (=Anglistik und Englischunterricht 14).
- Rall, D./Rall, M./Zorrilla, O., 1980. *Diccionario de valencias verbales. Alemán-Español*. Tübingen: Narr (=Tübinger Beiträge zur Linguistik 134).
- Ruzicka, R./Motsch, W.(Hrsg.), 1983. Untersuchungen zur Semantik. Berlin: Akademie-Verlag (=Studia grammatica 22).
- Sadzinski, R., 1989. Statische und dynalische Valenz. Probleme einer kontrastiven Valenzgrammatik Deutsch-Polnisch. Hamburg: Buske (=Beiträge zur Sprachwissenschaft 1).
- Schröder, J., 1993. *Lexikon deutscher Verben der Fortbewegung*. Leipzig u. a.: Langenscheidt/Verlag Enzyklopädie.

- Schumacher, H. (Hrsg.), 1986. Verben in Feldern. Valenzwörterbuch zur Syntax und Semantik deutscher Verbe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Schriften des Instituts für deutsche Sprache 1).
- Schumacher, H., 1988<sup>2</sup> (1987). Valenzbibliographie. Mannheim.
- Schwitalla, J., 1985. Verbvalenz und Text. *Deutsch als Fremdsprache* 22, 266-270.
- Sommerfeldt, K.-E./Schreiber, H., 1983<sup>3a</sup>.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r Substantive. Leipzig: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 Sommerfeldt, K.-E./Schreiber, H., 1983<sup>3b</sup>.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r Adjektive. Leipzig: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 Sommerfeldt, K.-E./Schreiber, H., 1996. Wörterbuch der Valenz etymologisch verwandter Wörter: Verben, Adjektive, Substantive. Tübingen: Niemeyer.
- Steinitz, R., 1969. Adverbial-Syntax. Berlin: Akademie-Verlag (=studia grammatica 10).
- Tarvainen, K., 1981. Einführung in die Dependenzgrammatik. Tübingen: Niemeyer (=Reihe Germanistische Linguistik 35).
- Tesnière, L., 1959.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Dt.: *Grundzüge der strukturalen Syntax*. Herausgegeben und übersetzt von U. Engel, 1980. Stuttgart: Klett.
- Vater, H., 1978. Probleme der Verbvalenz. Trier: L.A.U.T. (=KLAGE 1).
- Vater, H., 1981. Valenz. In: Radden, G./Dirven, R. (Hrsg.), 1981, 217-235.
- Vater, H. 1994. Einführung in die Sprachwissenschaft. Fink: München (=UTB 1799).
- Vater, H., 1995. Zur Struktur der Verbphrase im Deutschen. *Energiea* 20, 1-21.
- Vater, H., 1996a. VP-Struktur und Verbvalenz im Deutschen. In: Gréciano, G./Schumacher, H. (Hrsg.), 1996, 169-181.
- Vater, H., 1996b. Valenzpotenz und Valenzrealisierung im Deutschen. *Jahrbuch der ungarischen Germanistik 1995*. Budapest, 143-165.

- Welke, K., 1988. Einführung in die Valenz- und Kasustheorie. Leipzig: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 Wotjak, G., 1984. Zur Aktantifizierung von Argumenten ausgewählter deutscher Verben.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5, 401-414.

## **Zusammenfassung**

### **Das zweidimensionale Valenzmodell**

Choi, Kyun-Ho(Korea Univ.)

Die vorliegende Arbeit behandelt ein zweidimensionales Valenzmodell. In diesem Modell wurde der Versuch unternommen, durch Berücksichtigung valenzunabhängiger Faktoren die bisherige eindimensionale Valenzkonzeption zu überwinden und für Problemfälle der Valenzforschung angemessenere Erklärungen zu bieten.

Dabei wurde mit Agel (1994) davon ausgegangen, daß man zwischen Valenzpotenz und Valenzrealisierung unterscheiden sollte. Zwischen den beiden Ebenen besteht keine Isomorphie. Auf der Ebene der Valenzpotenz spreche ich von valenzgebundenen und valenzfreien Gliedern, auf der Ebene der Valenzrealisierung dagegen von notwendigen und optionalen Gliedern. Somit ergeben sich insgesamt vier Möglichkeiten: 1. valenzgebunden und notwendig; 2. valenzgebunden und optional; 3. valenzfrei und notwendig; 4. valenzfrei und optional. Viele Problemfälle der bisherigen Valenzforschung gehören zu dem zweiten und dem dritten Typ. Erst die Annahme des zweidimensionalen Valenzmodells bietet dafür systematische Erklärungen.

Anhand verschiedener Beispiele wurde gezeigt, daß syntaktische, semantische, pragmatische und konzeptuelle Faktoren die Valenzrealisierung beeinflussen. Valenzrealisierung ist somit nicht als bloße Wiedergabe der im Lexikon immanenten Valenzpotenz anzusehen.

Schließlich wurde am Beispiel von *gehen* das Verhältnis zwischen Valenzpotenz, konzeptuellen Prozessen und Valenzrealisierung dargestellt: Die Realisierung der eigentlich valenzgebundenen lokalen Adverbialbestimmung hängt eng mit den konzeptuellen Prozessen (Lokalisierungsprozeß vs. Delokalisierungsprozeß) zusammen. Falls Lokalisierungsprozeß stattfindet, ist die Realisierung der lokalen Adverbialbestimmung notwendig, um die Direktionalisierung des Verweisobjekts im Hinblick auf das Bezugsobjekt zu bezeichnen. Bei Delokalisierungsprozeß ist die Realisierung der lokalen Adverbialbestimmung dagegen optional.